

미국 인류학자가 본 5·18...논문 공개 주목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당한 항거... 모든 시민 함께 참여 "지속적 재평가로 정부와 미국의 책임 분명해지고 있다"

5·18 민중항쟁 당시 외국인 인류학자의 시각으로 광주 상황을 분석한 논문이 공개됐다. 1980년 광주에 머물고 있던 린다 루이스(Linda Lewis)가 쓴 이 논문은 광주 시민과 계엄군이 아닌 제 3자이자 외국인인 입장에서 항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린다 루이스(이하 루이스)가 1987년 작성한 '광주항쟁: 미국 인류학자의 참여 관찰' 논문의 번역본을 공개했다.

루이스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30대 초반의 나이에 광주를 찾아 전남대와 광주지방법원을 오가며 '한국 전통규범이 근대적 법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5·18이 일어났고,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다.

1980년 5월19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고생 3명을 자신의 집에서 재운 루이스는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며 시위자들을 수색하고 시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군인들은 잔인하고 입에서 불결한 냄새를 풍겼으며 최근에 숨진 지도자(박정희 대통령)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광주시민들은 루이스에게 "왜 미국은 가만히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루이스는 마크 피터슨 '폴브라이트' (미국 장학단체) 서울 사무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광주 상황을 지켜본 루이스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5·18을 '대중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초창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시위는 5월19일부터 계엄군의 잔학성에 분노한 일반인이 참여하며 항쟁으로 발전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 합류하지 못했다.

루이스는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물러난 이후인 5월23일을 기점으로 항쟁이 절정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참여하며 거리를 메웠고, 폭도·무법자·공산주의자 딱지가 붙을 염려가 있음에도 노동자부터 공무원까지 모든 시민계층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항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루이스는 광주시민들을 이끈 동력을 '분노'와 '민주화에 대한 갈망'으로 봤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력을 국군으로부터 당하자 광주시민은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저항이 폭동으로 폄하되자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다.

분노는 결국 민주정부를 수립하지는 정치적 운동으로 승화했다. 이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했고 개인 재산의 약탈이 없었으며, 광주시민들의 폭력행위는 계엄군이 나 소수의 정부 인사들에게 한정됐다.

루이스는 논문 말미에 "새로운 통찰과 실제적 진실이 발굴됐을 때 비로소 희생자의 관점에서 항쟁을 재평가 할 수 있다"며 "광주항쟁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희생자의 결백과 정부 행위의 부당함, 미국의 책임도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용주 연구원은 "이 논문은 평사봉사단원이었던 팀 완버그가 1987년 발표한 논문과 함께 외국인이 5·18을 학술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논문"이라며 "제3자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항쟁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해질 19:44 | 달뜨기 07:48 | 달지기 22:33

강한 비바람
낮부터 흐려져 오후부터 비 내리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19/29	보성	차차흐려져비 16/26
목포	차차흐려져비 19/26	순천	차차흐려져비 19/27
여수	차차흐려져비 20/25	영광	차차흐려져비 17/28
나주	차차흐려져비 17/29	진도	차차흐려져비 17/25
완도	차차흐려져비 19/25	전주	차차흐려져비 19/30
구례	차차흐려져비 18/29	군산	차차흐려져비 17/27
강진	차차흐려져비 18/26	남원	차차흐려져비 18/29
해남	차차흐려져비 16/26	홍산도	차차흐려져비 17/22
장성	차차흐려져비 17/2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1.0~2.5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2.0~4.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동~남	0.5~1.0	남동~남	2.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동~남	1.0~2.5	남동~남	2.0~3.0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남동~남	1.0~2.5	남동~남	2.0~4.0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26	04:18
여수	21:27	16:16
	04:52	10:54
	16:56	23:35

◇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	☀	☁	☀	☀	☀	☀
19/23	17/28	17/28	17/27	18/28	18/28	18/28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 기관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이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에 문을 열었다. 홍보관은 행사 소개와 함께 관람객들이 전시 주제 '휴머니'에 대한 생각을 적는 과정을 통해 키스미크로스의 작품 'Emojiballs'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최현배 기자 choi@

이번엔 '라돈 의료기'

3개사 일부 제품 기준치 초과 원안위·식약처 판매중지·수거

집구류와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 이어 이번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의료기가 발견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썬알앤엘, 썬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발견된 제품에는 의료기도 포함돼 있다.

이중 썬알앤엘의 경우 의료기인 개인용 온열기(바이오매트프로페셔널)와 공산품인 전기매트 2종(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모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썬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의료기인 개인용 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또 이 기업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1만2000여개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촌의료기가 만든 개인용조합자극기 'GM-9000' 역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제품은 국내에 1219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내일까지 강한 바람 동반 최고 150mm 호우

현충일인 6일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부터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7일 오후까지 남해안에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20~7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기상청은 5일 오후 4시 기준 장흥, 진도, 완도, 해남, 강진, 여수, 보성, 고흥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효했으며, 남해안 저지대 일부 지역은 해수면이 25~33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비는 7일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또 6일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7일까지 일부 해안지역에는 바람이 10~16% (최대순간 풍속 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9~13% (최대순간풍속 14%)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원의 특별전형 확대...전문대신입생 더 늘린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2020학년도보다 2796명 늘어

학령인구가 줄지만 전문대학들은 2021년도에는 오히려 신입생을 3000명 가까이 더 많이 모집한다.

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입시

에서 전국 135개 전문대학의 모집인원은 20만 8327명이다. 이는 현 고3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입시 20만 5531명보다 2796명 늘어난 것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전체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대학들이 재직자와 외국인, 성인학습자 등 다양한 입학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확대하면서 모집인원이 늘었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전체의 77.8%인 16만2126명으로 2020학년도에 비해 4064명(2.4%) 줄지만, 정원 외 모집인원은 4만 6201명으로 6860명(17.4%) 늘어난다.

모집 시기별로 보면 수시모집 인원은 17만9486명(86.2%)으로 정시모집은 2만 8841명(13.8%)이다. 정시 비중은 전년 13.1%에서 0.7%포인트 늘어난다. 전공별로는 간호·보건분야가 4만4536명(21.4%)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전기전자 4만4466명(21.3%), 호텔·관광 3만2377명(15.5%)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능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창·인성·직업교육의 산실
꿈☆이 이루어지는
순천청암고

순천청암고등학교
SUNGHEON CHEONGAM HIGH SCHOOL
http://scahs.jne.kr/

경제활력과 고용창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